논어 11편 선진 22장 · 원문·풀이

子畏於匡，顏淵後。子曰：「吾以女爲死矣！」曰：「子在，回何敢死？」

독음 · 자외어광 안연후 자왈 오이여위사의 왈 자재 회하감사

쉬운 풀이(요약) · 광에서 뒤늦게 돌아온 안회에게 죽은 줄 알았다고 하자, 안회는 스승이 살아 계시는데 자신이 감히 죽겠느냐고 답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畏 두려울 외 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匡 바룰 광 광

顏 얼굴 안 / 淵 못 연 연 / 後 뒤 후 후 / 曰 가로 왈

吾 자기 오 오 / 以 써 이 이 / 女 계집 녀 여 / 爲 할 위

死 죽을 사 사 / 矣 어조사 의 / 在 있을 재 재 / 回 돌 회 회

何 어찌 하 하 / 敢 감히 감 감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